

## '홍명보호 상대' 체코·멕시코·남아공,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 대진표

등록 2026.05.29 07:00:00



[프라하=AP/뉴시스] 체코 축구 국가대표팀. 2026.04.01.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 가장 빨리 대회를 시작하는 A조 4개국 이 각자의 스팅 파트너와 평가전을 치르며 최종 담금질을 이어간다.

대회 역사상 처음 3개국 공동 개최로 펼쳐지는 북중미 월드컵이 6월12일 오전 4시(이하 한국 시간) 멕시코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별리그 A조 맞대결로 개막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은 체코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 체코, 멕시코, 남아공이 묶인 A조는 전체 12개 조 중 가장 빨리 경기를 치러 뽀뽀하게 대회를 준비한다.

먼저 홍명보호의 첫 상대인 체코는 5월31일 자국 수도 프라하에서 코소보와 친선경기로 출정식을 가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다.

6월5일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과테말라와 평가전을 치르며, 이튿날 베이스캠프지인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동해 담금질을 이어 간다.

체코는 2006년 독일 대회(조별리그 탈락)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로 맞붙을 멕시코는 홈 이점으로 비교적 빨리 대회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가나와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멕시코는 5월31일 한국전을 대비해 호주를 상대하고, 6월5일 세르비아와 친선 경기를 벌인다.

멕시코는 자국 프로축구 리가 MX에서 뛰는 국내파 위주로 조기 소집한 가운데 가나를 완파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푸에블라=AP/뉴스시스]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2026.05.22.

홍명보호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은 5월30일 요하네스버그의 올랜도 스타디움에서 니카라과와 평가전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남아공은 최종 명단 26명 중 자국 리그 명문팀 올랜도 파이리츠와 마멜로디 선다운스 선수들로만 16명을 채웠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A조 최약체로 평가되지만, 2010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아 베일에 싸여 있는 남아공이다.

체코, 멕시코,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홍명보호도 북중미 월드컵 모드에 한창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중미 월드컵 대비 사전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 사전캠프지에선 5월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 6월4일 엘살바도르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이튿날 결전지 멕시코로 향하는 한국은 6월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41위' 체코와 대회 첫 경기에 나선다.

1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선 '15위' 멕시코를 상대한다.

이후 과달라하라를 떠나 몬테레이로 향하는 축구대표팀은 25일 오전 10시 BBVA 스타디움에서 '60위' 남아공을 상대한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 대회와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거둔 원정 16강을 넘어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한다.



[넬스프룻=AP/뉴시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 2025.10.14.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